

“좋은 인연 만남의 잔치 준비”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27일 산사음악회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이 ‘소년소녀가장돕기 울산시 군민과 함께 하는 좋은 인연 좋은 만남 한마음 산사음악회’를 9월 27일 오후 6시 30분 지원 경내에서 연다. 음악회는 초청가수와 지원 합창단, 지역 연합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초청가수는 김종환 전영록 남궁옥분 민혜경 등 7080세대의 ‘큰 별’들이다.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불자이며 산사 공연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 화려하고 흥겨운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지원 합창단의 선법가 공연과 울산불교연합합창단의 축하공연도 흥겨운 무대를 한층 뜻 깊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악 퍼포먼스와 퓨전 가야금 공연 가야금 독주 등 흥겨운 무대도 준비된다.

산사음악회보행위원회 신원장 위원장은 “만남의 장, 화합의 장, 희망의 장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산사음악회를 지역민에게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을 제공해 주는 의미 있는 잔치로 만들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종교편향 사과합니다”

원로 개신교인 범어사 방문 유감 표명



정여 스님(가운데)에게 유감을 표명한 정영문 목사, 이종석 안수집사, 김상훈 목사.

부산 원로, 중견 개신교인들이 범어사(주지 정여)를 방문, 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9월 8일 오후 2시 부산종교인평화회 고문 정영문 목사(80), 부산시민사회총연합 상임의장 이종석(78) 수영로교회 안수집사, 부산종교인대화 아카데미 상임대표 김상훈(53) 목사가 범어사 주지실을 찾았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타난 일련의 불교 폄하 행태에 대해 “개신교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운을 폈다.

이어 “근간에 일부 편향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마치 개신교와 불교 간 대립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크게 유감”이라며

“개신교인으로서 개신교가 그동안 불교계에 이런저런 심리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신교 안에서 새롭게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불교계도 넓은 마음으로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주지 정여 스님은 먼저 “종교 화합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어 고맙고, 방문해주신 뜻을 의미 깊게 받아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종교가 소중하면 다른 종교도 소중함을 인정해야 종교 간 화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모여 원만융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패션 1번지에 禪바람 분다

미타선원 ‘참선안심법회’ 고우 스님 등 법문



부산의 경제, 문화, 패션 1번지 광복동에서 불법을 전하는 ‘도심 수행도량’ 미타선원(주지 하림)이 창건 2주년을 맞는다.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에서는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산문에 축전 및 선문화원 개원식을 열고, 35일간 용두산 전체를 축제의 불빛으로 환하게 밝힌다.

현재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연구회(1층) 건물 전 층에 자리 잡게 될 선문화원은 개원 전부터 선지식초정 참선안심법회로 선수행의 열기가 뜨겁다. 9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선문화원 설립전에서 총 6주간 진행될 이번 법회는 한국선의 기틀을 다지며 융맹정진 해 온 선지식들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9월 20일 첫 법회에는 금봉암 조

실 고우 스님, 27일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10월 4일 前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 스님, 11일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겸 미타선원장 오경 스님, 18일 지리산 벽송선원장 월암 스님, 25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에 개원하는 선문화원은 총 4층으로 1층 갤러리, 다목적홀, 기획전시실, 2층 사찰음식연구회, 사찰음식집, 3층 선수행학교, 옥상의 야외공연장으로 구성된다. 지난 2월 초 착공해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개산문에축전 기간 중인 10월 25일 오후 1시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개산문에축전’은 10월 24일 오후 7시부터 극락전 앞에서 ‘천년사비 삼천불 삼천등 점등식’으로 시작해 ‘미타불자 어울림 한마당’의

로 2번째 개산대제를 봉축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다음날인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산대제 법회’와 ‘선문화원 개원식’이 봉행된다.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참선의 생활화를 위해 기초라도 가르쳐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년 참선안심법회를 열고 있다”며 “올해에는 개산문에 축전과 더불어 선문화원이 새로 문을 여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선 수행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0월 20일부터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미타선원 및 선문화원 일원에서 상설전시행사가 마련된다. (051)253-8687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대상 부산진여고 산청합창단

부산파라미타 ‘2008 파라미타의 메아리’ 개최



‘2008 파라미타의 메아리’.

파라미타 청소년 합창단이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푸른 가을 하늘을 수놓았다.

9월 7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전국 청소년합창대회 ‘2008 파라미타의 메아리’가 열렸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합창대회에는 8월 8일 예선을 거쳐 선발된 6개 학교가 본선에 출전해 그동안 갖고

두는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함안중학교, 학산여자중학교, 해동중학교, 금정중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가 출전해 지정곡 총 3곡 ‘도리지꽃(작곡 박지훈)’, ‘별(작곡 이수인)’, 산유화(작곡 이현철) 중 1곡과 자유곡 1곡으로 열띤 경합을 벌였다.

대상은 부산진여고 산청합창단, 금상은 금정중 합창단과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은상은 함안중 합창단, 동상은 해동중과 학산여중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창립12주년 기념 시상에서는 우수지도자 부문 금명중학교 이미갑 교사, 광무여자중학교 박혜숙 교사, 모범회원 부문 가야고등학교 2학년 11반 장권현 학생 외 76명이 수상했다.

박지원 기자

영화미소 3인展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에서 연꽃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린다. 개산대제 ‘2008 금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경내에서 ‘영화미소’ 3인展을 마련한 것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 강윤성, 김병균, 안기택 3인의 작가가 아름다운 연꽃에 신앙심과 예술적 감성을 함께 담아낸 60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연꽃 문양은 연화좌를 위시해 불단, 천장, 문살, 공포, 탑, 석등, 부도, 기와, 범종 등 사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꽃문양이다. 이 연꽃에는 불교 교의와 신앙체계, 부처님에 대한 불자들의 신앙심, 종교적 염원이 담겨 있어 이번 전시회가 더욱 뜻 깊다.

사진전에서는 전시작 60점을 포함 총 120점이 수록된 12절판, 144페이지의 사진집도 발간한다. (051)803-6666

박지원 기자

커피향 보다 그윽한 향훈

불국토를 찾아서

마산 금강노인복지관 아리카페 1호점

“서울 홍대 입구에 ‘커피프린스 1호점’이 있다면 마산에는 내가 운영하는 ‘커피시니어 1호점’이 있다”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김승희 할머니(69)는 바리스타다. 자신이 만든 커피를 맛있게, 또 맛있게 마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TV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주인공 직업이 바리스타였다. 바리스타는 커피를 추출하는 사람을 뜻한다. 생소한 직업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을 깬 것이 있다.

2007년 3월 문을 연 마산 금강노인복지관의 ‘아리카페 1호점’에서는 어르신들이 서빙부터 바리스타까지 모두 직접하고 있다. 현재 총 10명의 실버바리스타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하

버바리스타 전복임 할머니(69)는 항상 맛있는 커피가게로 입소문이 난 탓에 손님들로 북적이지 만 발길이 뜸한 시간이면 캔커피도 마유도 읊조린다. “손님은 아무리 많아도 피곤한 줄 모르고 커피를 만든다”며 “커피를 만들다보면 가끔 예쁘게 못 담아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서로 웃어넘겨 힘들 거를 없다”고 말했다.

실버바리스타라는 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당찬 실버들을 이끄는 것은 바로 자부심이다. 실버바리스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홍봉미 할머니(72)의 꿈은 오래오래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 나이에 꿈이라는 단어를 쓰기 민망하지만,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람들에게 내게 마



실버바리스타의 정성 가득한 커피 ‘인기짱’

루 4개조씩 교대로 근무한다. 이 카페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의 다정다감한 사랑방이 됐다. 이런 이곳만의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는 모두 어르신들의 넉넉한 웃음과 경륜 덕분이다.

실버바리스타 김분식 할머니(69)는 수많은 커피 중에서 카페 라테를 만들 때 가장 행복해진다. “라테 위에 하얀 우유거품으로 하트를 그려서 커피를 내어주면 손님들이 환하게 웃는데 그 순간이 너무 뿌듯하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손자들의 재물이 편히 쉴 나이이지만 여기 모인 할머니들에게는 배움과 도전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

김분식 할머니의 동갑내기 실

든 커피를 맛보게 하는 게 내 마지막 꿈”이라고 한다. 9월 6일 실버 바리스타 필기 시험이 실시됐다. 이날 10명의 어르신에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1차 관문을 거쳐, 한 달 후인 10월 4일 아리카페에서 실기 시험을 통해 정식 바리스타로 자격증을 교부받게 된다.

최연장자 실버바리스타 홍봉미 할머니는 앞으로 탄생할 후배 바리스타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배우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10월은 노인의 달이다. ‘인생은 60부터’라고 외치며 멋진 제2의 삶을 개척하는 어르신들의 당당함이 멋지다. 박지원 기자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전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전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전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